

## ▶ 가족·아동

##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심리적 복지

- 생태학적 가정복지모형의 적용 -

전 호 정\* (동아대학교 가정관리학과 조교수)

본 연구는 다양한 가족유형과 가족의 생활주기를 고려하여 가정의 물리적, 심리적 특성을 중심으로 가정복지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변인들을 밝히고, 그 변인들 간의 관련성과 메커니즘을 이해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연구의 틀로 사용할 수 있는 가정복지 연구의 이론적 모형을 먼저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이론적 변인과 측정 변인들 간의 관계를 설정하여 구조방정식모형으로 분석하였다. 가족생활주기 6단계로 각 단계별 가족 100가족씩 총 600가족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가족의 다양한 특성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남편과 아내의 나이와 학력은 각각 정적상관이 매우 높았으며, 학력과 나이는 각 부적 상관을 보였다. 나이와 학력이 높을수록 가정의 월평균소득이 높아졌다. 또한 나이가 많을수록 결혼전교재기간이 짧고, 학력이 높을수록 교재기간이 유의하게 길어진다고 하겠다. 결혼기간이 학력과 결혼전교재기간과 유의한 역상관을 보였는데 이는 젊은 부부들이 학력이 높고 결혼전교재기간이 상대적으로 길다고 할 수 있겠다. 이와 유사하게 가족생활주기도 연령, 소득수준 및 결혼기간과는 정적상관을 학력과는 부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자존감의 경우 연령 및 결혼기간, 가족생활주기와는 부적상관을 학력 및 소득, 그리고 결혼전교재기간과는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스트레스 대처능력의 경우 나이, 결혼기간, 그리고 가족생활주기와 부적상관을 학력, 소득, 결혼전교재기간, 그리고 자존감과는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결혼적응도의 경우도 이와 유사하게 연령, 결혼기간, 가족생활주기와 부적상관을 보인 반면, 학력, 소득, 결혼전교재기간, 자존감과 스트레스 대처능력과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가족기능의 경우도 학력, 소득, 결혼전교재기간과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였으며, 자존감, 스트레스 대처능력, 그리고 결혼적응도가 높을수록 가족기능이 높게 나타났다. 심리적 복지는 나이 및 가족생활주기와 부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인 반면, 학력, 소득, 결혼전교재기간, 자존감, 스트레스대처, 결혼적응도, 및 가족기능과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였다.

경로분석 결과에 의하면, 스트레스 대처능력을 예측하는 유의한 변인은 결혼전교재기간과 자존감으로 나타났다. 즉, 결혼전교재기간이 길고 자존감이 높을수록 스트레스 대처능력이 높다고 하겠다. 결혼적응도를 예측하는 유의한 변인은 나이, 결혼기간, 가족생활주기, 자존감, 그리고 스트레스 대처능력으로 나타났다. 즉, 남편과 아내나이가 작을수록, 결혼기간이 짧을수록, 가족생활주기가 낮을수록, 자존감과 스트레스 대처능력이 높을수록 결혼적응도가 높아진다고 예측할 수 있다. 가족기능의 경우 나이와 가족생활주기가 유의한 예측 변인으로 남편과 아내의 나이가 많을수록 그리고 가족생활주기가 높을수록 가족기능이 낮아지는 반면, 자존감, 스트레스 대처능력, 그리고 결혼적응도가 높을수록 가족기능이 높아진다고 하겠다. 심리적 복지를 예언하는 유의한 변인은 월평균소득과 결혼전교재기간, 스트레스대처 능력과 결혼적응도로 나타났다. 즉, 소득이 높고 결혼전교재기간이 길고, 스트레스대처능력, 결혼적응도, 그리고 가족기능이 높을수록 심리적 복지가 높아진다고 하겠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가정의 복지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예방 및 중재의 개념으로 가정복지 증진 프로그램 개발할 수 있다.